

■ 특특뉴스

논알코올 ‘호가든 프룻브루’ 출시

호가든이 달콤쌉쌀한 맛의 프리미엄 논알코올 음료 ‘호가든 프룻브루(Fruit brew)’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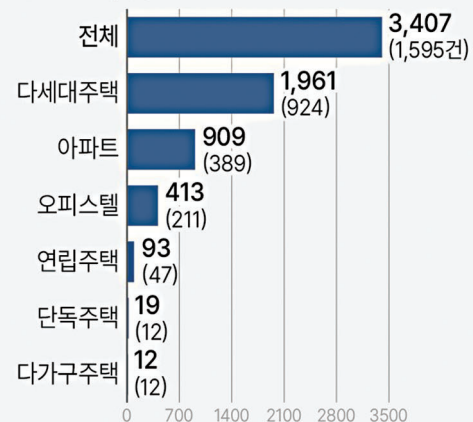
호가든 프룻브루는 고유의 풍부한 맛을 지닌 호가든에서 알코올은 추출하고 이국적인 과일 향을 더해 발효 및 숙성 과정을 거쳐 만들었다.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신개념 프리미엄 논알코올 음료로, 과일의 맛과 향에서 느껴지는 달콤쌉쌀함과 호가든의 양조기술로 바다감이 더해진 풍부한 맛이 매력적이다. /이연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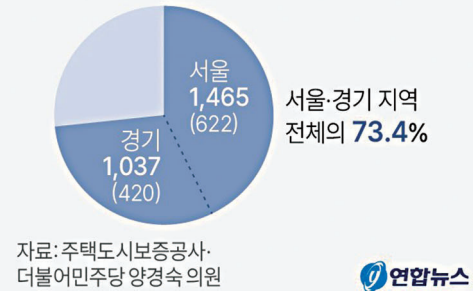
■ 그래픽 경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피해액 현황

1~6월 기준
단위: 억 원, () : 사고 건수



지역별 사고 현황



상반기 폐인 전세금 3,407억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치솟는 기름값…배 띄우면 손해봐요”

여수 낚시배 현장 기보니

성수기 주말 불구 부두에 발 묶여
한 드림당 작년동기비 두 배 올라
해파리떼 출몰에 고기도 안잡혀
선주들 “보조금 지원 늘렸으면”

“한 번 출조하면 순수익으로 한 20만 원 정도 남아요. 인건비를 제하면 하루종일 죽어라 일해서 10만 원도 안 남는 거죠.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데 해파리떼 출몰에 고기도 안잡히니…”

코로나19로 일었던 ‘낚시 붐’도 이제 옛말. 여수의 낚시 배 선주 김 모씨(65)는 이제 배 띄우기가 무섭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수 특성상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정도 출조하던 예년과 달리 천정부지로 오른 기름 값에 고기마저 잘 잡히지 않아서다.

김씨는 “기름 한 드림이면 4시간 정도 운행할 수 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기름 2드림 씩 때서 오전, 오후 출조를 나갔는데 이제 손님이 없을 뿐더러 기름값이 부담이라 기름을 그렇게 구매할 엄두도 안 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손님이 예약을 해도 일정 이상의 인원이 차지 않으면 사실상 출조 나가는 게 손해예요. 손님을 다 태워도 지금으로선 20만 원 정도밖에 안 남는데, 인건비를 제하면 이것도 못 벌죠. 배를 띄워 돈을 버는 것을 한 평생 업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배를 띄우면 손해라…”

다른 선박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기름 값 부담에 결국 선비 인상을 감행했다는 이 모씨



지난 10일 오전 여수 국동항.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낚시배들이 출조하지 않고 부두에 묶여 있다.

(59)는 “참돔 타이라바를 잡으러 나가는 우리 배 특성상 고기가 나오는 포인트를 찾아 새벽부터 저녁 7시까지 이곳저곳 멀리 돌아다녀야 해서 평소 기름을 2드림씩 끓는다. 원래 한 드림에 25만 원 정도 해서 딱 하루에 50만 원이면 기름값이 해결됐는데, 갑자기 한 드림에 거의 30만 원씩 해 버리니 선비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인상을 이해해주는 조사님들도 있었으나, 사정을 설명해도 불만을 표시하는 조사님들도 있어 사실상 선비도 1만 원 인상에 그쳤다”고 토로했다.

수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이달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는 200 l 들이 한 드림에 29만 4,210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11만 6,790원) 2배

이상 올랐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가뭄과 일찍 찾아온 폭염에 고기 잡기도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이상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서남해안 일대에 해파리 떼가 출현해 어장도 예전같지 않기 때문이다.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지난달 21일 전남, 전북, 경남 전체 해역에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낚시 관련 업계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목포에서 낚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 또한 미끼 관리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지렁이를 중국에서 공수해오는데, 지렁이는 습도 등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리

기 때문에 바로바로 납품하는 것이 중요하나다. 그런데 요즘엔 있던 출조도 취소되거나 안 나가는 배들이 워낙 많아서… 지렁이도 오래되면 딱딱 끊어져서 미끼로도 못 쓰게 되버리니 그냥 다 흠에 갖다 버릴 수밖에 없죠. 아깝지만 이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에 어민들에게만 제공하는 면세유 연동 보조금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의 1당 면세유 보조금은 최대 112.5원.

김씨는 “지금 찬 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며 “어민들에게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출조선에도 조금이나마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오지현 기자

광기술원, 차양·광센서조광 자동제어시스템 개발

LED 대비 에너지 절감률 43%

제어 정확도 96.4% 세계 최고

한국광기술원은 건물 조명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내 차양자동제어’와 이와 연동하는 ‘광

센서조광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실내 차양 자동제어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확산주광량에 따라 실내 조명기구의 밝기를 제어하는 조명에너지 절감 시스템이다.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단계적 의무화에 따라 스마트조명연구센터 김유신 박사팀은 실내 ‘차양 자동제어 연동 광센서조광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국제저널 ‘서스테인어빌리티(Sustainability)’와 ‘에너지(Energies)’에 각각 게재했다.

시스템의 제어 정확도는 96.4%로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루튼(Luton)기업의 제어시스템이 가진 제어 정확도 85%보다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개발 시스템을 경기도 연천군 소재 전국 중학교에 설치하고 약 8개월간 실증 연구를 진행해 조광 제어시스템 적용 시 기존 LED 조명 대비 약 43%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홍승현 기자



글로벌 일류기업

건해건설(주)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무한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준공

강원 동해시, 광주 용봉동, 서울 공릉동 등 아파트 644세대

진행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피스텔 240호
영광 군서면 마을리 연립주택 212세대

예정

대전시 동구 낭월동 희담재 아파트 258세대

대표이사 **이 현 각**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16
TEL. 062) 574-8501

기쁨을 주는 아파트

www.gunhae.co.kr

희담재
HEDAMJAE

